

전세금 데일라... 지난해 임차권 등기신청 또 최대치 경신

광주 1306건 10년 내 최대... 전남도 전년 대비 91.3% 급증 보증금 못 받고 대출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역대 최대치

지난해 광주와 전남에서 전세금을 받아내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세입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자기 자본 없이 깎투자자 나선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 경기 약화와 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임차권 등기 설정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306건으로 전년(719건)보다 1.8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1.88배 증가한 1017건을 기록했다. 임차권설정등기는 전세 만기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 등본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이 효력이 사라진다. 그러나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하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2023년 광주지역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719건으로 2022년보다 무려 3.8배가 오르며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지난해 또다시 2배 가까이 늘면서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특히 지난해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최근 15년 간 전체(4532건)의 38.2%에 달했다. 전남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신청건수가 15년 전체의 28%를 차지하는 등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급증했다. 지역의 한 법무사는 "작년 10월의 경우 아파트 한 동에서만 8건의 임차권 설정등기 신청 의뢰가 들어오기도 했다"면서 "지난해 의뢰사건은 평년의 5배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전국적으로도 속출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증가했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경기(1만2668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 순으로 많았다. 정부가 명단 공개한 광주-전남 '악성 임대인' (23명)이 떠먹은 전세 보증금도 421억 5300만원에 달했다. 평균 연령은 40.9세이며, 1인당 평균 13억3000만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서구 매월동에 주소지를 둔 법인은 약 169억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대출을

갚지 못해 결국 집을 경매에 넘긴 집주인들도 늘고 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광주지역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건수는 전년(1551건)보다 38% 늘어난 2150건을 기록했다. 전남 역시 2023년(5654건)보다 35% 늘어난 5654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13만 9869건을 기록, 전년(10만 5614건) 수치를 넘어섰다. 최화동 법무사는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지난해만의 문제가 아닌 현재 진행 중인 현상"이라며 "앞으로 상당기간 전세금 미환반으로 인한 임차권등기명령 및 대출금을 받지 못해 경매로 나가는 물건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은행권, 설 연휴 자금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5대 시중 은행·광주은행

신규 대출·만기연장 등 제공

시중 5대 은행(하나·KB국민·신한·우리·NH농협)과 지역 대표 은행인 광주은행 등 은행권이 설 연휴를 전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금난을 미처 회복하지 못한 데다, 경기 부진과 12·3 계엄선포와 탄핵 리스크 등까지 '앞친 데 뒷친' 격으로 자금난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월 14일까지 총 15조 1000억원 규모의 설 특별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이 각

각 6조1000억원, 9조원 규모다. 하나은행은 최대 1.5%포인트(p)의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역시 오는 2월 14일까지 15조 1000억원을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규 대출 6조 1000억원, 만기 연장 9조원으로, 최대 1.5%p 이내의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협약을 맺고, 1050억원의 특별 출연을 통해 2조 7000억원의 신규 자금도 선제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 역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신규 대출 6조 1000억원, 만기 연장 9조원 등 총 15조 1000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업체당 소요자금 범위 내 10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

원하고, 대출만기 시에는 원금 일부상환 조건이 없는 만기연장,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지원 기간은 동일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임직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15조 1000억원 규모다. NH농협은행은 오는 2월 13일까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 5조원, 만기 연장 8조원 등 13조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지원한다. 광주-전남지역 대표 은행인 광주은행 역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설 명절 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신규 대출 3000억, 만기 연장 3000억 등 총 6000억 규모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올 소비시장 5대 키워드는 'S.N.A.K.E'

대한상의 생존·차세대·인공지능·K컬처·불황형 소비 선정

올해 소비시장 5대 키워드로 생존(Survival), 차세대(Next), 인공지능(AI), K컬처, 불황형 소비(Economical consumption) 등이 꼽혔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날 발간한 '2025 유통산업 백서'는 푸른 밥의 해인 올해 소비시장 5대 키워드로 'S.N.A.K.E'를 선정했다. S는 한정된 소비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시장 내 생존(Survival) 경쟁을 강조한 키워드로, 최근 소매시장 성장률은 2021년 7.5%를 정점으로 2023년 3.1%, 2024년 0.8%로 하락세를 보인다. 올해는 미국 통상 정책 변화와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고조 등으로 시장 성장률이 0.4%에 그칠 것으로 상의는 분석했다. N은 새로운 사업 모델(Next Biz 모델) 개발과 추가 수익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는 점에서 꼽힌 단어다.

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건비를 줄이고 비용구조를 최적화하는 등 비용 및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노력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K컬처와 융합된 커머스도 한층 더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헬스&뷰티(H&B) 전문점인 올리브영은 K콘텐츠클러스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어 외국인이 한국 방문 시 꼭 들러야 하는 쇼핑 메카로 자리 잡았고, 해외 매출도 늘었다.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 고조로 가격을 중시하는 불황형 소비(Economical consumption)가 전반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관측됐다. 상의는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 고조로 생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만큼 유통기업은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을 찾아야 한다"며 "AI와 K컬처에서 성장 돌파구를 찾고, 가격 중시 소비 흐름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롯데백화점 광주점 설 선물세트 판매 시작 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한우, 전복 등 다양한 설 명절 선물세트들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은 오는 27일까지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4월 광주 전국기능경기대회 24일까지 참가 기술인 모집

광주시 기능경기위원회가 '2025년 광주시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제 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지역인 광주는 대회 개최에 앞서 지역 대표 숙련기술인을 선발한다. 참가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이며, 참가 자격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등을 제외한 광주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광주 소재 학교, 기업체 등 단체에 소속된 시민이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회는 오는 4월7일부터 11일까지 광주 시내 곳곳에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모바일 로보틱스', '사이버보안' 등 AI 기반 직종을 포함한 50개 직종에서 경합을 벌인다. 대회 입상자는 상장과 메달, 소정의 상금과 해당 직종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및 산업기사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올해 9월 광주에서 열리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역 대표로 출전한다. 참가 접수는 '마이스터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광주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역 경제계 제주항공 희생자·유가족 지원

광주상의·광주전남농협·건설협회 성금 기탁·물품 지원·봉사 활동

지역 경제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지원활동에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00만원을 기탁했다. 광주상의는 지난해 12월 29일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원 성금을 기탁하기로 결정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큰 충격과 상실감을 겪고 계실 유가족분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광주상의는 앞서 지난 2일 5·18 민주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희생자를 애도했다. 광주전남농협도 제주항공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9000만원 상당의 물품지원을 지원하고 나섰다. 농협육성조직인 고향생각자주모임 회원은 무안 공항 현장 자원봉사도 실시했다. 광주전남농협은 참사 발생 직후 재난대책상황실을 운영, 임직원 및 조합원 피해현황을 확인하

고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농협은 방한용품 등 5000만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고 농협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 희생자에게 장례용품 20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사고현장 자원봉사자를 위해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관내 농협측도 보령로 납입 유예 및 연체자 면제, 유가족 대상 장례용품과 생필품 등을 추가로 지원 예정이다. 농협주부대학 출신 모임 고향생각자주모임 회원 20명은 참사 직후인 29일부터 무안공항에서 희생자 유가족을 위한 음식제공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이광일 전남농협 본부장은 "유가족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제주항공 유가족을 위한 통합 돌봄 및 트라우마 치료지원 등 심리정서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농협 임직원들은 1000만원의 성금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건설협회전라남도회도 지난 6일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를 통해 사고 피해복구와 유가족 생활안정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인터넷은행도 생활자금·주담대 한도 확대

새해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새로 부여되면서 시중은행뿐 아니라 인터넷은행들도 일제히 가계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7일 카카오펜크는 오는 8일부터 생활안정자금 기타용도(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상환 용도 외)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없앤다고 밝혔다. 카카오펜크는 지난해 9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는데, 이를 해제한 것이다. 카카오펜크는 당시 주담대 대출 기간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상자 조건을 '무주택 세대'로 한정하기도 했다.

카카오펜크는 지난해 11월 주담대 대출 기간을 최장 40년까지로 확대했으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상자 조건은 여전히 무주택 세대로 유지하고 있다. 케이뱅크도 이날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아파트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했다. 원금을 갚지 않고 이지만 상환하는 기간인 '거치기간'도 없앴다가, 최대 12개월까지도 늘렸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지난해 9월 시행했던 조치를 모두 원상복구했다는 게 케이뱅크 측 설명이다. /연합뉴스

전남경진원 중소기업 자금 지원 안내 간담회

경영안정자금 등 변경 내용 설명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경진원)은 7일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취급 금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기관 실무자들에게 올해 변경된 전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내용을 안내하고 정책자금 지원 강화 방안,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기존 이자 지원금에

0.4%포인트를 환급하여 기존 1.1%~2.5%였던 지원율이 실질적으로 1.5%~2.9%로 상향된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종료 후 1년 재이용 제한 규정을 완화해 창업 7년 이내 기업들도 예외적으로 재이용이 가능해졌다. 경진원 관계자는 "금융기관 실무자들에게 변경된 정책을 지원 현장에 알맞게 적용, 중소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올 1분기 자금 신청은 2일부터 온라인 접수 시스템(www.jinfund.kr)을 통해 접수받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우븐 "전라·충청 폭설 우편물 배달 지연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7일 밤부터 충청과 전라도 등 서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우편물 배달이 일부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배달 지연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륜차로 우편물 배달이 어려운 지역은 사륜 차량을 이용해 시한성 우편물 위주로 배달할 계획이다. 이어 집배원과 소포위탁배달원의 안전을 먼저 고려해 가능한 지역부터 배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편물 수취인에게는 배달우체국에서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배달 지연 상황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등기우편물의 운송·배달 상황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와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 우체국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92.10 (+3.46)
↑ 코스닥	718.29 (+0.33)
↓ 금리(국고채 3년)	2.508 (-0.016)
↓ 환율(USD)	1449.00 (-20.70) (오후 5시 55분 기준)